

매출액 전년대비 1.8% 소폭 증가 예상

2010년도 세계농약시장은 4/4분기까지 성장세가 계속되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8% 증가한 408억9천3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곡물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농업인이 농작물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약 사용량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신흥개발 시장이 주요 성장을 이끌었다. 반면 유럽,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재고물량이 보통이상으로 남아 판매가격을 계속해서 위축시켰으며 이는 전체 세계농약시장에 영향을 미쳐 상쇄하고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는 현재 최저 가격에 이르고 있지만 수요가 높아 판매액이 소폭 증가될 것임에 틀림없다. 실질기간 동안 전체 농약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화를 감안하면 2.8% 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별 용도별 시장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시장전망

북아메리카의 2010년도 농약판매액은 2%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은 이상기후, 높은 재고물량 및 가격압박 등이 주요 부정적 요인으로,

연초부터 판매실적이 낮게 형성됐다. 그러나 지난 몇달동안의 낮은 재고물량과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해 농약 수요량이 크게 증가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동계작물에 대한 많은 수요 뿐만 아니라 2011년 1/4분기에 앞선 판매를 유도할 것이다. 특히 면화는 중국과 인도의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계속해서 시장 성장이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농약수요 또한 농가수입 특히 면화와 콩재배 농가의 수입이 증가되어 영향을 받았다. 글라이포세이트의 가격은 현재 낮은 수준으로 안정세이며, 많은 물량의 수요로 판매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지역별 시장 전망

품목별 매출액(\$m)	2009(a)	2010(추정)b)	(b/a, %)
북아메리카	9,701	8,952	-7.7
라틴아메리카	8,775	9,729	10.9
서유럽	8,460	8,137	-3.8
동유럽	1,495	1,570	5.0
극 동	9,110	9,746	7.0
기 타	2,621	2,759	5.3
총 계	40,162	40,893	1.8

캐나다 농약시장은 2010년초 홍수피해로 곡류 및 카놀라 재배의 대부분 지역에 큰 손해를 주

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동계 재배작물 확대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강력한 농약시장 회복은 라틴아메리카의 10.9% 성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 성장은 브라질에 의해 주도되지만,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와 같은 다른 주요 시장 또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들은 신용, 상품가격, 대단위 작물재배 등 폭넓은 가용성을 통해 혜택을 볼 것이다. 브라질은 주요 가을재배 시즌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 늦게 시작되었으나, 우기의 시작으로 빠른 파종과 농약수요의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2010년도 면화재배 증가는 농가의 높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투자로 살충제와 제초제 수요를 증가시켰다. 사탕수수 또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세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콩과 옥수수에 사용되는 농약의 판매 또한 증가했는데 특히 살균제의 사용량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성장의 지속은 기후조건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또한 2010년 유전자변형작물 콩, 옥수수의 급속한 재배 확산은 경엽 살충제(foliar insecticide) 사용 감소와 가격이 낮은 글라이포세이트의 사용량 증가를 유도했다. 시장성장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가격압박으로, 높은 재고물량과 특허 만료 제품의 경쟁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유럽의 매출액은 3.8% 하락으로 2010년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기후가 주요 부정적인 요인으로 추운 겨울날씨로 인해 늦게 시작된 영농기는 고온 건조한 여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조건은 살균제와 제초제에 대한 매우 낮은 수요

와 높은 재고량을 초래했고, 이는 남은 기간동안에도 지속될 것이다. 농산물의 가격약세와 지역경제의 불안정한 회복 또한 농업인의 농작물에 대한 비용지불 의욕을 감퇴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농산물 시장은 특히 유지종자 유채(oilseed rape), 과일, 채소류, 포도의 약세로 모든 수요가 낮아졌다. 시장전망은 밀 가격상승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겨울철 곡류 재배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약 사용량 확대를 고무시키게 될 것이다. 옥수수에 사용되는 농약 또한 옥수수뿌리벌레(corn rootworm) 확산과 유전적으로 변형된 곤충저항성 및 제초제 저항성 종자의 부족에 따라 비교적 양호했다.

동유럽은 개선된 경제 여건 및 신용도 유효성 회복으로 농약판매액의 5.0%가 증가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 2009년 시행된 위해성관리(risk management)정책이 지연된 상태로, 판매의 급반등을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은 혹해 지역의 심한 가뭄과 고온의 여파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 곡물류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어 일부 상쇄됐다. 곡물 작황 부진은 최근 밀 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겨울 내내 대량 재배가 예상되어진다. 이 지역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투자의 재기는 고가의 농약제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타지역의 매출은 5.3%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가장 큰 시장인 인도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인도의 매출은 양호한 모순기후 여건으로 혜택을 받아 대부분의 주요 재배작물의 재배

가 확대됐다. 특히 면화는 높은 가격으로 강세를 보였다. 게다가 특히 만료된 농약시장은 농업의 새로운 기술수용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 파키스탄 시장은 광범위한 홍수의 여파로 실적이 부진했으며 새로 시작되는 영농기 동안 면화 재배가 확대되어 일부 상쇄될 것이다.

제품별 시장 전망

선택성 제초제 분야는 가을과 겨울 기간동안 많은 양의 작물재배로 이익을 낼 것이다. 이는 2010년초 수요 감소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비선택성 제초제의 부진이 회복될 수 없어, 전반적인 제초제 매출액은 2010년도에 2.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라이포세이트 시장은 가격이 안정화 되면서 현재 회복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일발처리(burndown) 사용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 글라이포세이트 저항성 작물에 과대사용으로 수요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제조 생산 능력 초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낮은 수익은 일부 제조업체의 시장퇴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외의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글라이포세이트의 낮은 가격은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와 패러팟디클로라이드(Paraquat) 같은 비선택성 제초제의 대체 효과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것이다. 선택성 제초제는 콩, 면화, 사탕 수수 작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콩과 면화 이외의 제초제와 글라이포세이트

트가 혼용가능한 후기제초제가 저항성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유럽의 곡물용 제초제 분야는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작물 재배 지역 확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 품목별 전망

품목별 매출액(\$m)	2009(a)	2010(추정)b)	(b/a, %)
제초제	17,869	17,508	-2.0
살충제	10,195	10,653	4.5
살균제	10,244	10,796	5.4
기 타	1,854	1,936	4.4
총 계	40,162	40,893	1.8

살충제 시장은 2010년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신제품 출시와 오래된 제품의 지속적인 취하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기인계(Organophosphates)와 카바메이트계(Carbamates)와 같은 오래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지는 엄격한 환경 규제 및 독성자료 요구로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제품들은 대부분은 폐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되어 질 것이다. 동시에 경제적인 성장과 농업발전에 따라 살충제 시장은 결국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네오니코티노이드계(Neonicotinoids)와 같은 새롭고 더 효과적인 제품의 사용으로 이동될 것이다. 특히 브라질,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시장의 농업인은 생산성 증가의 수단으로써 이 제품들을 적극 수용할 것이다.

1/4분기 낮은 수요 이후 살충제, 종자처리제 매출 또한 높은 작물 가격의 영향으로 나아지고 있다. 주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피레스로이드계(Pyrethroids)와

같은 주요 특허만료 품목의 경쟁의 증가이다. 옥수수의 경우, 다중 곤충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축적된 형질의 확산으로 경엽 및 토양처리 살충제의 수요 또한 줄어 들 것이다. 면화 사탕수수는 작물 가격 강세로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살균제는 5.4%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며 2010에 가장 많이 성장한 분야가 될 것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등 2/4분기의 수요 호조로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연초의 약세를 상쇄한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브라질의 콩, 옥수수, 과일 및 채소용 농약은 전년대비 회복되고 있으나, 라니냐로 견조한 기후로 변한다면 수요는 감소될 것이다. 북·라틴아메리카 모두 농산물 가격이 최근 특히 회복됨으로써 식물생장증진 향상을 위한 살균제 사용량 증가가 예상된다. 유럽, 캐나다, 호주는 호전된 기후 조건과 곡물류의 재배화 대로 더 많은 살균제가 사용되었다. 특히 신흥시장인 극동지역은 농가에서 과일, 채소류, 벼, 유지 작물에 대한 품질 향상과 수확량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살균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기타 농약의 매출은 면화 및 곡물 생장조정제에 힘입어 4.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훈증제 매출액 또한 비록 옥수수뿌리벌레용 제품 판매가 유전자변형작물 대체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작물의 재배면적 증가로 개선될 것이다.

작물별

면화는 성장세를 주도하여, 작물가격의 상승과 재배확대로 농약 매출액을 11.1%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이다. 쌀은 신흥시장인 ‘극동지역’의 농약 사용량이 늘어 매출액을 3.6%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일 및 채소류는 라틴아메리카, 극동 및 인도의 살균제 수요가 늘어 2.5% 증가될 것이다.

콩에 사용되는 농약의 매출액은 살균제, 종자처리제 및 선택성 제초제의 사용증가로 글라이포세이트의 저조한 판매액을 상쇄해 1.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탕무 분야는 환율영향으로 인해 대략 1.2%가 감소될 것이다.

2010년도 작물별 전망

품목별 매출액(\$m)	2009(a)	2010(추정:b)	(b/a, %)
곡물류	6,620	6,355	-4.0
면화	2,490	2,766	11.1
과일 및 채소류	12,864	13,186	2.5
옥수수	3,529	3,437	-2.6
Canola/oilseed rape	665	652	-2.0
벼	3,588	3,717	3.6
콩	4,211	4,262	1.2
사탕수수	603	596	-1.2
기타	5,592	5,922	5.9
총 계	40,162	40,893	1.8

캐놀라, 유지종자 유채(oilseed rape) 분야는 유럽과 캐나다의 이상기후로 2.0%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옥수수 분야 매출은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 증가와 저가의 글라이포세이트 수요 증가로 2.6% 감소될 것이다. 곡물류는 4.0%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의 연초 예견된 급격한 사용감소에 따른 것이다. 기타 작물 분야 판매액은 사탕수수와 비식용작물의 성장으로 인해 5.9% 증가할 것이다.